

보도 일시	2022. 7. 17.(일) 12:00	배포 일시	2022. 7. 17.(일) 12:00
담당 부서 <총괄>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장 장재동 (051-718-0320)
		담당자	사무관 조희영 (051-718-0332)

18~19일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 천둥·번개, 돌풍 동반 시간당 30~50mm 매우 강한 비, 1.5~4m 높은 파고 -

주요 내용

- 부산, 울산, 경상남도 30~100mm(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많은 곳 150mm 이상)
-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50mm 매우 강한 비
- 남해동부먼바다와 동해남부남쪽먼바다 1.5~4.0m 매우 높은 물결



[7월 18일~19일 기압계 모식도]

- 부산지방기상청장(청장 김현경)은 내일(18일) 새벽(03~06시)부터 비가 시작되어 모레(19일) 아침(06~09시)까지 부울경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내일(18일) 강한 바람이 불며, 해상에서도 내일(18일)과 모레(19일)에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와 함께 상세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기압계 전망]

-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울경 지역에 내일(18일) 새벽(03~06시)부터 모레(19일) 아침(06~09시)까지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의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남서풍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유입되어 지형효과를 많이 받는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강수 전망]

- 정체전선과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일(18일) 새벽(03~06시)에 부울경 지역에 비가 시작되어, 이 비는 모레(19일) 아침(06~09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에는 내일(18일) 오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특히, 내일(18일) 오후(12~18시)부터 모레(19일) 새벽(00~06시) 사이 강한 남서풍계열의 바람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 또한, 18일 밤(21~24시)부터 19일 새벽(00~03시) 사이 대조기의 만조 시간대와 겹쳐 부산과 울산,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상하수도 및 맨홀, 배수관 등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겠으니, 상습 침수구역과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예상 강수량 (18 ~ 19일) >

- 부산, 울산, 경상남도: 30~100mm (많은 곳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150mm 이상)

- (예보 변동 가능성) 이번 강수는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의 강도와 강수량, 바람의 세기 등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강수량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풍 전망]

- 내일(18일) 부산과 경남남해안에는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풍랑 전망]

- 남해동부면바다는 내일(18일) 오후(12~15시)부터, 동해남부남쪽면바다는 모레(19일)부터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남해상에는 당분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18일)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또한, 부산과 울산, 경남남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